

## 포천시시장선거 박윤국 큰표차 當選

포천시 전지역 서장원·홍찬기 후보보다 절대 우위 당선자, “시민 시장 공직자 하나의 파트너 이룰 것”

박윤국 현 포천시장이 5.3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개표결과 박윤국 후보는 유효투표 55.2%를 득표해 28.7% 득표에 그친 서장원 후보와 16.2% 득표한 홍찬기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박윤국 당선자는 개표가 시작된 가선거구부터 서장원 후보와 홍찬기 후보를 앞서가기 시작해 시의원 나선거구 지역, 시의원 다선거구 지역 등 전지역에서 2명의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 당선을 확정했다.

소흘읍 지역을 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흘읍 지역에서 홍찬기 후보에 대한 동정론으로 표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지역마저 박윤국 당선자가 훨씬 앞서 새벽 1시30분경 당선이 확정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결국 포천시 총유권자 11만7천916명 가운데 5만9천911명이 투표에 참여해 50.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효투표수 1천76표를 제외하고 박윤국 후보는 32,454표(55.2%) 서장원 후보 16,882표(28.7%)와 홍찬기 후보 9,508표(16.2%)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윤국 당선자의 각 지역별 득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재자투표 1,374표 ▶소흘읍 6,495표 ▶군내면 1,599표 ▶내촌면 1,093표 ▶가산면 1,875표 ▶신북면 2,610표 ▶장수면 821표 ▶영중면 1,807표 ▶일동면 2,743표 ▶이동면



박윤국 후보의 당선에 맞춰 고조흥 국회의원이 축하해 주위해 방문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종호 시의원 당선자, 고조흥 국회의원, 박윤국 당선자, 김영대 시의원)

1,643표 ▶영북면 3,693표 ▶관인면 1,434표 ▶화현면 777표 ▶포천동 2,923표 ▶선단동 1,627표 등 총 32,454표를 득표했다.

포천시장에 재선된 박윤국 당선자는 포천시 영북면 출생으로 올해 나이 50세다. 그는 영북초·중·고를 거쳐 명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초대 포천군위원과 제4대 경기도의회 신한국당 대표의원, 경기도 유럽통상 경제추진단 대표의원 등을 거쳐 민선3기 포천군수로 당선된 후 포천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포천시장을 맡고 있다.

박윤국 당선자는 “관현악단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시민과 시장 그리고 공직자는 하나의 파트너”라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의 돌파구는 서로가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당선자는 “오랜 세월동안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풀어가야 한다”면서 “시민과 약속했던 사안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잘못된 규제법령 적극 대처”

김문수 당선자, 수도권 중첩규제 말도 안 돼

31일 실시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문수 당선자는 유효 투표 가운데 59.7%를 얻어, 30.8%의 진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선거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졸음 1위를 지켜온 김 당선자는 선거막판까지 대세를 지켜내면서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다시 행정가로 변신하게 된 김 당선자가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또 하나의 관심거리다.

김 당선자는 경북 영천에서 1951년에 태어나 서울대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일공업 도루로 노조위원장, 민중당 노동위원장, 제15, 16, 17대 국회의원에 이어 순천포 도지사 뒤를 이어 민선 4기 경기 지사에 올랐다.

김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서 감사하다. 친구를 잃지 않은 승리에 감사한다”며 “내 개인이 잘나서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국민들의 큰 몸부림을 직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당선자는 “경제가 어렵고 앞이 캄캄하다는 도민들의 원성이 있다”며 “겸허하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법령에 대해 김 당선자는 “규제라는 건 수정법, 접경지역 규제, 팔당상수원 인근 규제 세 가지다”라면서 “연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무장지대가郡을 가로 지르고 있고 98%가 군사시설보호 지역이고, 이런 곳을 수도권이라 해서 역할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상세 자료를 만들고 대통령이든, 정부든, 언론이든 모든 분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정책은 책상에 앉아 연천도, 포천도 수도권이라고 규정하는 아주 잘못된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경쟁했던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에 대해



“훌륭한 반도제 전문가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올린다”며 “앞으로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조언을 구할 것이다.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들에게 “아내와 딸도 이번 선거를 위해 열심히 뛰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면서 “언제나 든든한 아내와 딸의 지원이 있었기에 더욱 힘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불우이웃돕기 창구

社  
告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과 성금 및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성금 접수내역

- 포천제일사우나 대표 고남석 43만원 (정기기탁)
- 성하꽃플라워 대표 황무연 3만원 (자동이체)
- 김소춘 5만원 (자동이체)
- 윤춘근 5만원
- 늘봄꽃화원 대표 강육자 3만원 (자동이체)
- 김중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20만원 (자동이체)
- 서금자 2만원 (자동이체)
- 흑돈황우 대표 박시훈 3만원 (자동이체)
- 신형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 2만원 (자동이체)
- 임경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3만원 (자동이체)
- 능이버섯백숙 3만원
- 김소춘 5만원 (자동이체)
- 가산면 금현1리 김영숙 쌀 20kg 3포대

#### ▶성금(물품) 전달내역

- 남궁민 왕방초등학교 3학년 10만원
- 최유리 왕방초등학교 4학년 10만원
- 홍나래 왕방초등학교 5학년 10만원
- 이은지 왕방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하진희 왕방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나승호 삼성중학교 1학년 10만원
- 전병권 삼성중학교 2학년 10만원
- 정휘원 삼성중학교 2학년 10만원
- 김민지 삼성중학교 3학년 10만원
- 이미향 삼성중학교 3학년 10만원
- 가산면 금현1리 이창섭 쌀 20kg 2포대
- 소흘읍 이동교리 채지수 쌀 20kg 1포대

### 최고의 서비스 자동차 종합병원

# 1급

## 동이자동차 공업사 검사장

▶보험수리전문 ▶자동차매일검사 ▶각종 차량 종합정비

서비스

· 6개월 AS · 정품 사용

· 사고시 차량무료대여 · 사고시 견인차무료대여



대표 최성배  
011-397-8993

